

Memories of Eunpyeong New Town / Kang Hong Goo «Home Flower Village...»
은평뉴타운의 기억 강홍구 사진전 «집 꽃 마을...» Eunpyeong History Hanok Museum
은평역사한옥박물관



Preface

Home, Flower, Village, is an exhibition that displays the historic appearance of Jingwan-dong and the creation of a new city through the *Eunpyeong New Town* series by veteran photographer Kang Hong Goo. It reflects on the changes in villages and cities brought about by their surroundings.

Kang Hong Goo, whose photographs have captured the city and its surrounding space, has faithfully documented changes in the New Town area for more than 20 years, resulting in at least 1,300 photographs. When he moved to Bulgwang-dong in 2001, he became fascinated with Jingwan-dong, which was inside a greenbelt area and was like a small town in the middle of Seoul. The artist was absorbed by the surreal landscape, but he never imagined that beginning in 2004, it would become a place of unprecedented change that showed the true nature of a metropolis like Seoul.

Kang's work combines multiple images taken at different times into one scene. However, this is his only aesthetic intervention with reality. His photographs are raw and unromanticized. The fragmented scenes show a changing city that is full of contradictions and create mixed emotions for the viewer. For example, he simultaneously contrasts an old stagnant village containing a country house with a lively, affectionate personality, with the sophistication and uniformity of a new city. This process creates a mixture of strange emotions, like the beauty of abandoned houses. The message of his photography shies away from the extremes of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nd seriously questions how life can be improved.



강홍구 / Kang Hong G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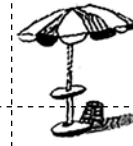
1956년 전남 신안에서 태어났다. 목포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6년 동안 섬에서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 다시 학생이 되어 홍익대 회화과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디지털 사진을 매체로 한 작업에 천착하여 삼성미술관 리움, 플라토 갤러리와 원앤제이갤러리, 고은사진미술관, 우민아트센터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한 많은 전시에 참가했다.

2009년 이후 사진 위에 색을 칠한 <그집 2010>, <녹색연구 2012> 등의 작품들로, 2013년에는 부산 산동네와 집을 찍은 <사람의 집-프로세믹스 부산>이라는 제목의 개인전을 부산과 청주, 서울에서 열었다. 2015년에는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인전 <우리가 알던 도시>를, 2016년에는 <청주-일곱 마을의 도시>를 우민아트센터에서 전시했다.

지은 책으로는 <미술관 밖에서 만나는 미술 1·2권>, <디카를 들고 어슬렁>, <시시한 것들의 아름다움>, <아뜰리에 탐험> 등이 있다. 2006년 올해의 예술가상, 2008년 동강사진 예술상등을 수상했고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우민아트센터, 고은사진미술관 등 여러 곳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고은사진미술관 관장, 문예위 위원 등을 지냈다.



차례 / Contents



은평뉴타운 1지구
Eunpyeong New Town District 1
14p

못자리골

은평뉴타운 3-1지구
Eunpyeong New Town District 3-1
62p

한양주택

이팔산

은평한옥마을
Eunpyeong Hanok Village
182p

구파발역
Gupabal Station
78p

제각말

은평뉴타운 3-2지구
Eunpyeong New Town District 3-2
122p

우물골

물푸레골
Mulpuregol
10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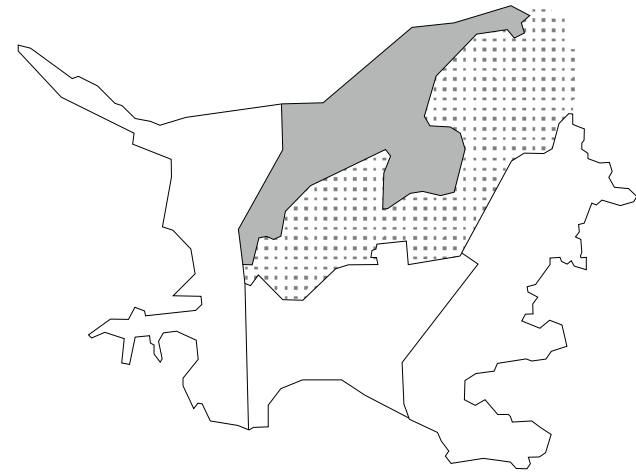
은평뉴타운 2지구
Eunpyeong New Town District 2
32p

기자촌
Kijachon
138p

폭포동
Pokpodong
160p

은평뉴타운 1지구
Eunpyeong New Town District 1

2002 — 2015



1지구2002 003 | digital photo&print | 220×90 | 2021



1지구2002 004 | digital photo&print | 220×90 | 2021



1지구2002 001 | digital photo&print | 220×80 | 2021

18₁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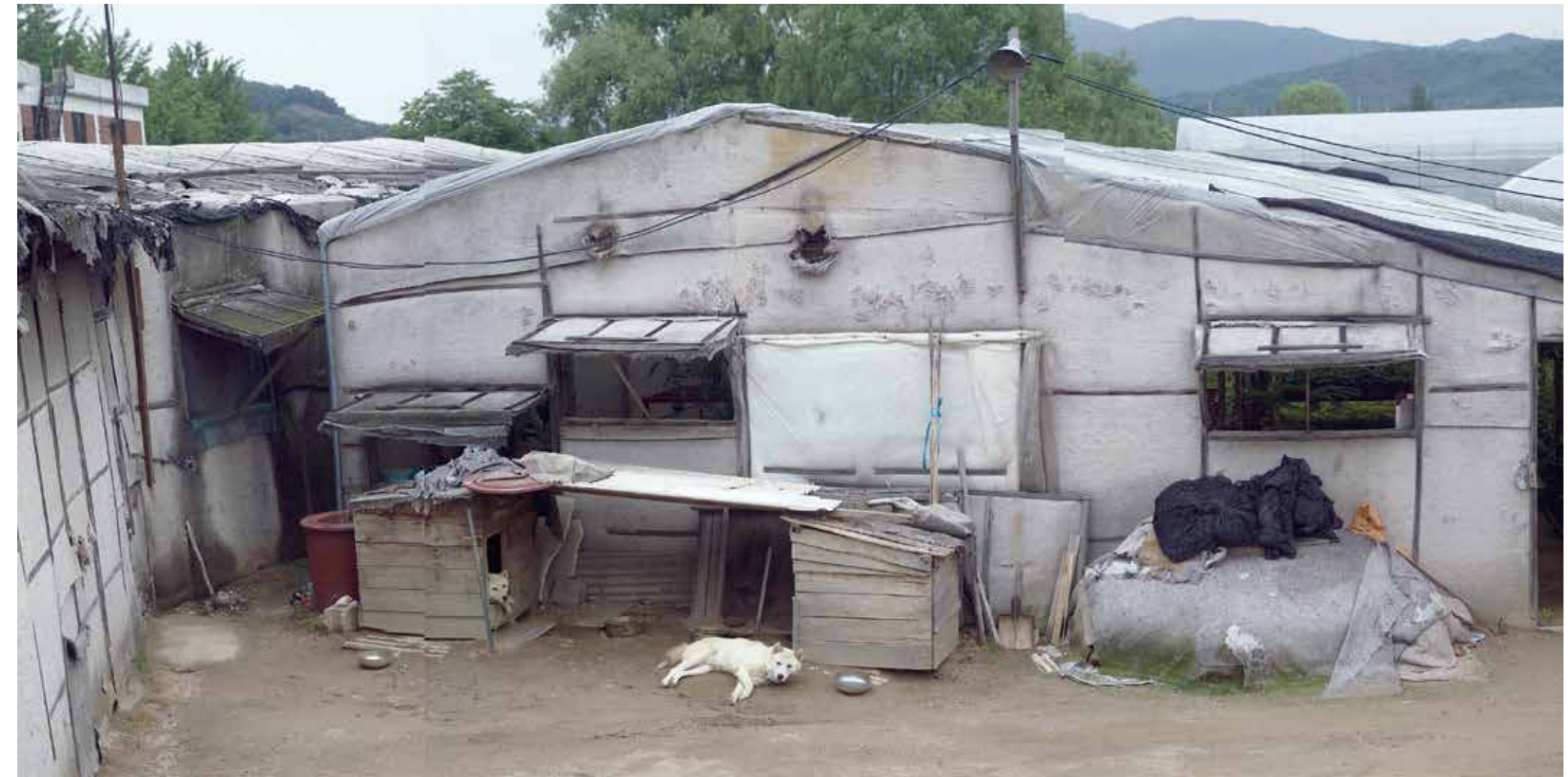


1지구2004 017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1지구2004 015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1지구2005 034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1지구2008 064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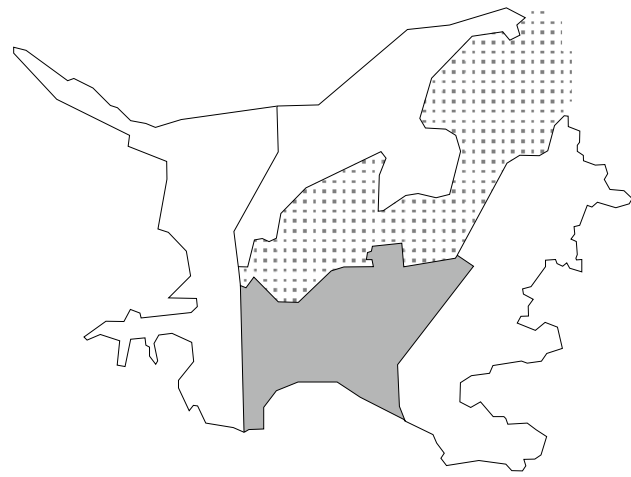


28₂₉



1지구2008 079 | digital photo&print | 180×100 | 2021





은평뉴타운 2지구
Eunpyeong New Town District 2

2003 — 2014



2지구2003 001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2지구2004 032 | digital photo&print | 230×90 | 2021



2지구2004 060 | digital photo&print | 125×107 | 2021

2지구2004 061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2지구2004 063 | digital photo&print | 220×90 | 2021







42⁴³

2지구2006 123 | digital photo&print | 220×90 | 2021



2지구2006 108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2지구2006 126 | digital photo&print | 220×90 | 2021

2지구2006 129 | digital photo&print | 220×90 | 2021





48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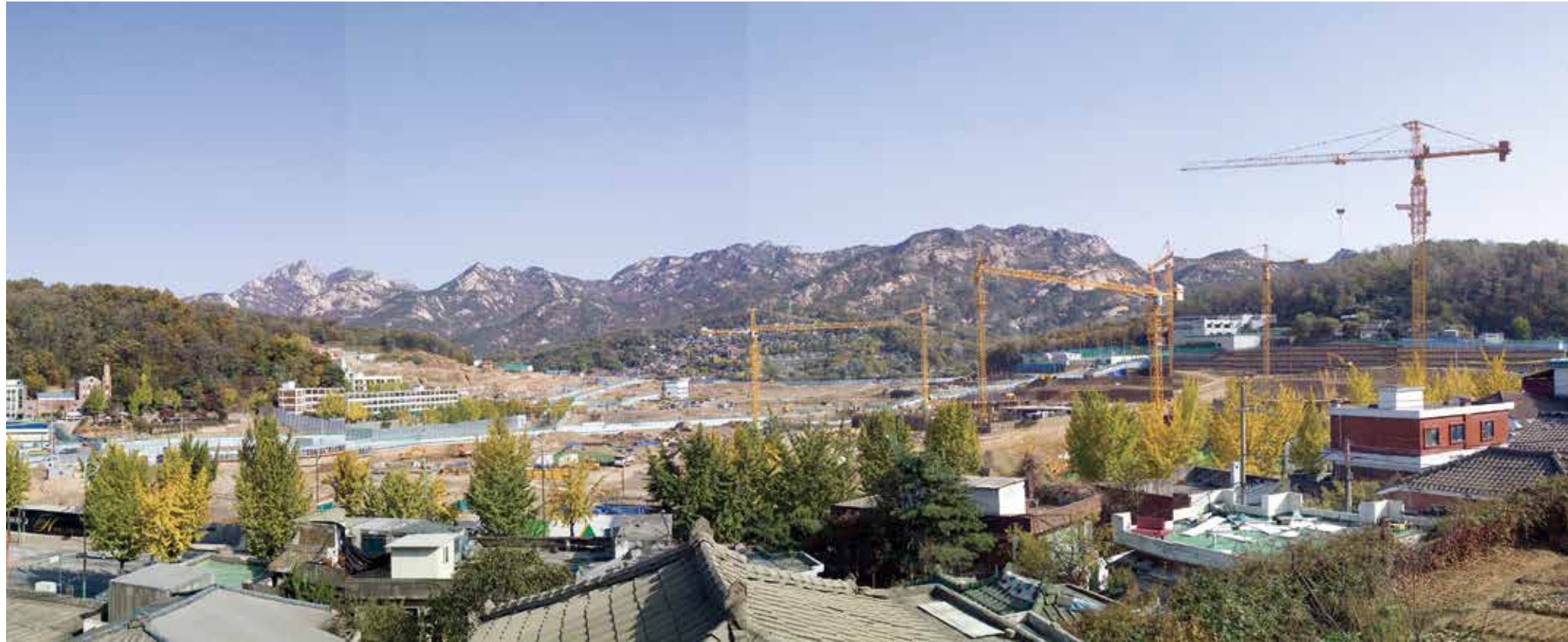






54
55





2지구2006 202 | digital photo&print | 220×90 | 2021



2지구2008 240 | digital photo&print | 220×90 |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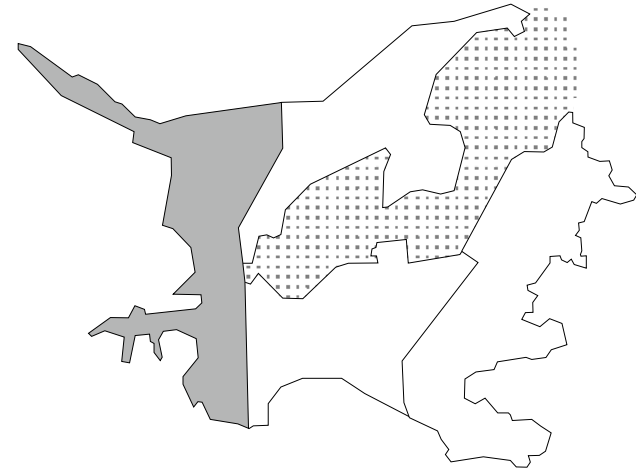
2지구2011 251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2지구2012 255 | digital photo&print | 220×90 | 2021

은평뉴타운 3-1지구
Eunpyeong New Town District 3-1

2007 — 2014



해당화와 개

이유경

내 집 뜰에서 십수 년 머문 해당화와, 삼 년을 먹고 짓던
잡종견이 자신들을 버리고 우리 갈 줄 아는 듯하였다.
지난봄 내내 개는 제 집안에서 말라갔고, 그 옆에 선 해당화는
가시 돌친 줄기에서 새싹 두엇만 내놨기 때문이다.

우리 마당 이 물건들은 여름 내내
“다 함께 살 아파트는 어디 없냐?”했지만
그 여름 다 가기 전 우린 헤어져야 했다.

그 해당화는 화분에 심었다가 죽었고, 남의 집 살이 보낸
개는 새 주인과 함께 행방을 감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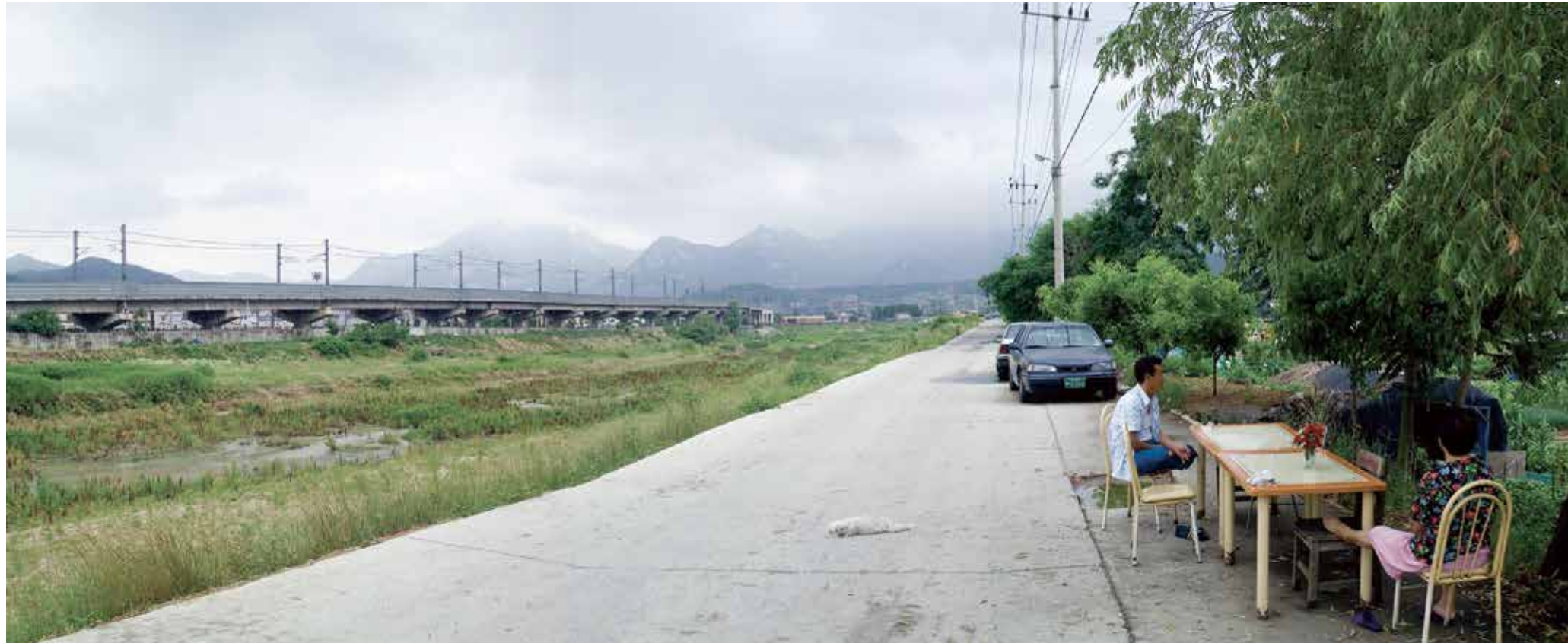
이듬해 봄 나의 옛집은 헐렸고,
버린 가구들이 쓰레기 되어 찾아간 우리를 외면하였다.

진관동 한양주택에서 23년간 거주했던 이유경 시인은 재개발 풍경을
담은 여러 편의 시를 남겼다. 『자갈치 통신』, 2007



한양주택2006 006 | digital photo&print | 220×90 | 2021







내집사랑2009 | digital photo&print | 220×90 | 2021





72⁷³



한양주택2007 065 | digital photo&print | 220×90 |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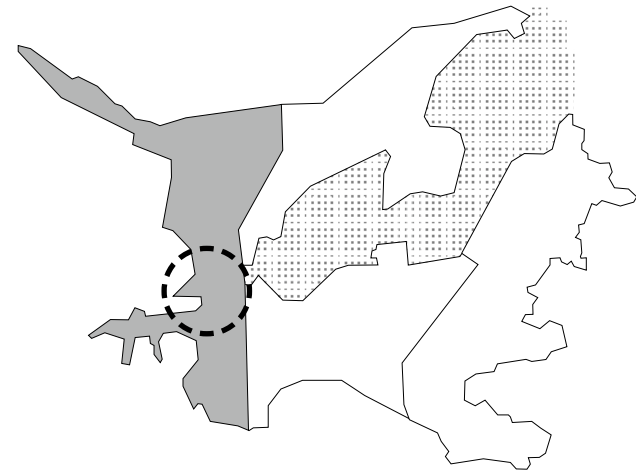


한양주택2007 067 | digital photo&print | 125×107 | 2021



구파발역
Gupabal Station

2003—2017





구파발역2003 018 | digital photo&print | 220×90 | 2021





84³⁵

구파발역2003 015 | digital photo&print | 230×90 | 2021

구파발역2003 027 | digital photo&print | 230×90 | 2021







88₃₉





구파발역2007 099 | digital photo&print | 200x100 |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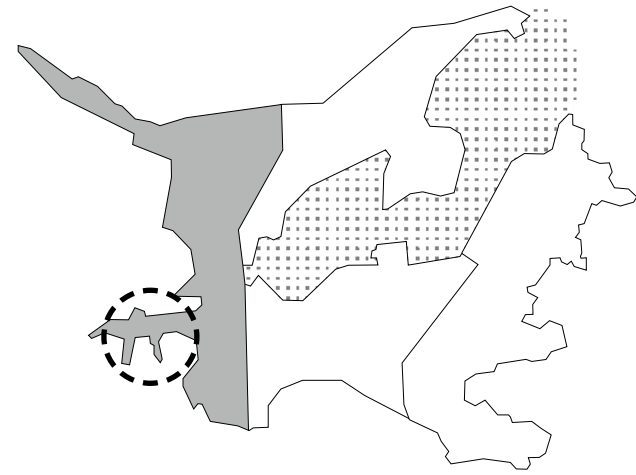
96⁹⁷





물푸레골
Mulpuregol

2006—2020





물푸레골2006 014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물푸레골2006 017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106, 107





물푸레글2007 067 | digital photo&print | 125×107 | 2021



물푸레글2007 064 | digital photo&print | 100×100 | 2021



물푸레글2007 055 | digital photo&print | 220×90 | 2021



물푸레글2007 072 | digital photo&print | 125×107 | 2021









물푸레골2014 112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물푸레골2020 113 | digital photo&print | 220×90 | 2021



은평뉴타운 3-2지구
Eunpyeong New Town District 3-2

2004 — 2007



3-2지구2004 014 | digital photo&print | 220×90 | 2021



3-2지구2005 038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3-2지구2006 071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126¹²⁷





3-2지구2005 046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3-2지구2007 122 | digital photo&print | 125×107 |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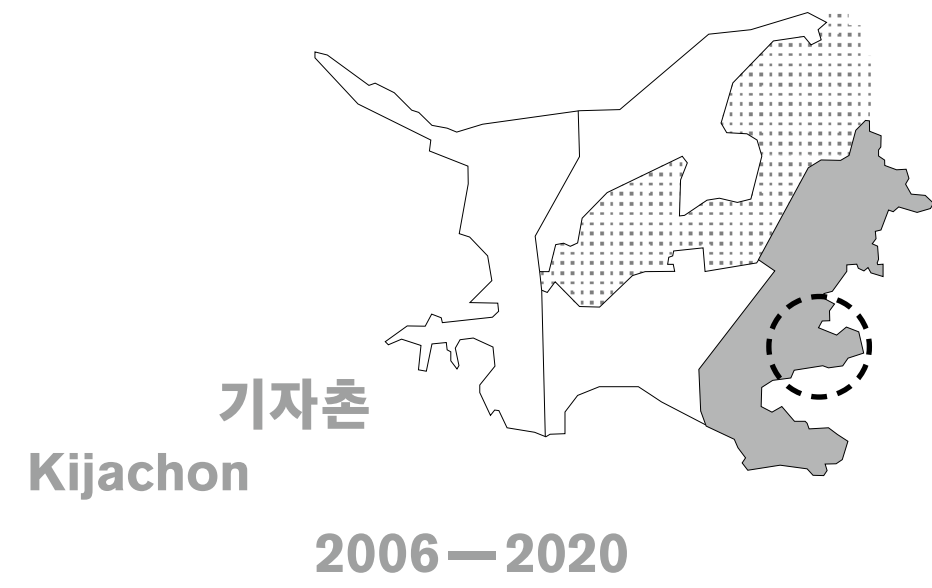




3-2지구2007 117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3-2지구2007 114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기자촌2006 007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기자촌2006 008 | digital photo&print | 125×107 | 2021



기자촌2006 009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140¹⁴¹





144₁₄₅



기자촌2006 021 | digital photo&print | 125×107 | 2021

146
147



기자촌2008 038 | digital photo&print | 125×107 | 2021



기자촌2008 035 | digital photo&print | 125×107 | 2021



기자촌2008 037 | digital photo&print | 125×107 | 2021









154₁₅₅



기자촌2009 131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기자촌2009 156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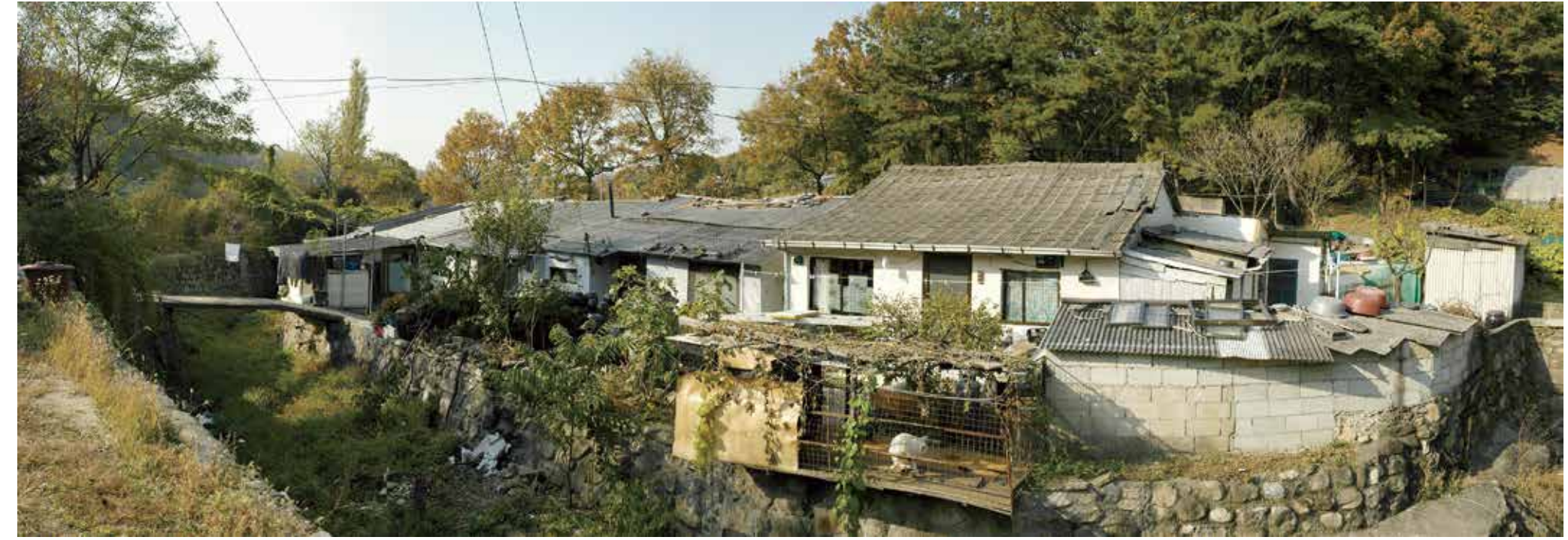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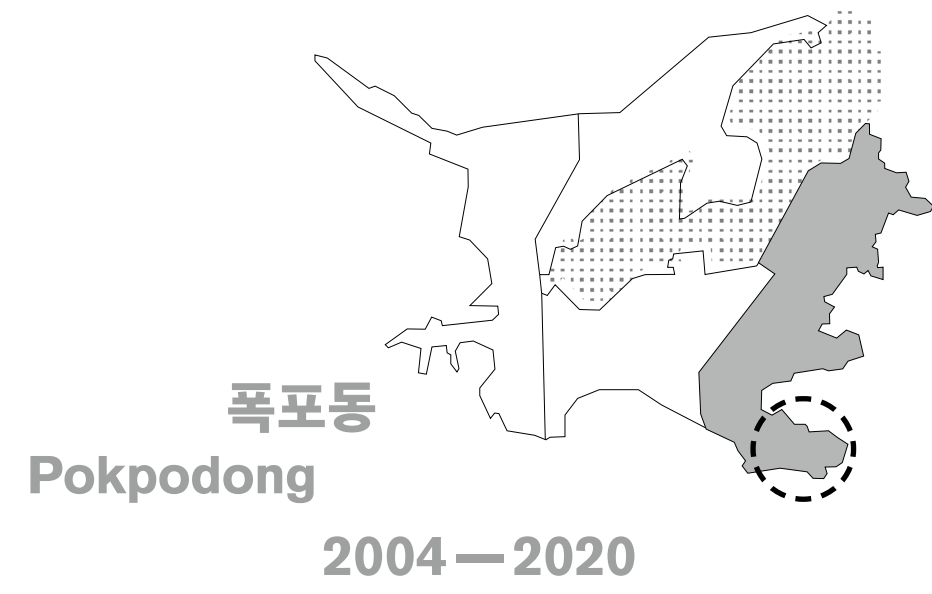
기자촌2009 164 | digital photo&print | 125×107 | 2021

156¹⁵⁷



기자촌2009 076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폭포동2004 024 | digital photo&print | 240×90 | 2021



폭포동2006 103 | digital photo&print | 200x100 | 2021

162¹⁶³



폭포동2005 076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폭포동2006 113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폭포동2006 106 | digital photo&print | 125×107 | 2021



폭포동2006 107 | digital photo&print | 125×107 | 2021



폭포동2006 085 | digital photo&print | 125×107 |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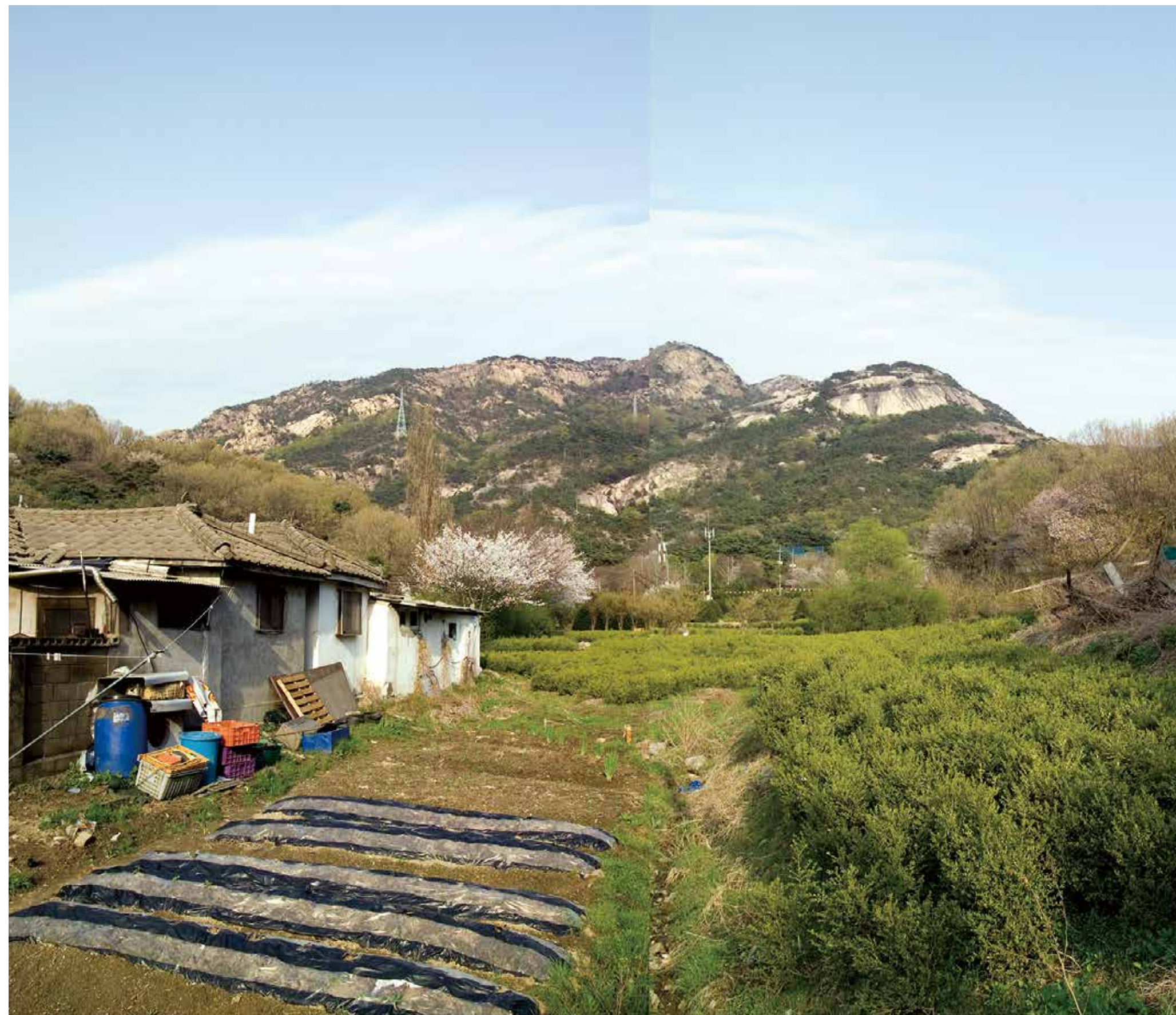
폭포동2006 122 | digital photo&print | 125×107 | 2021



폭포동2006 132 | digital photo&print | 220×90 | 2021



폭포동2006 140 | digital photo&print | 220×90 | 2021





폭포동2006 147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폭포동2006 152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폭포동2006 162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폭포동2007 180 | digital photo&print | 220×90 |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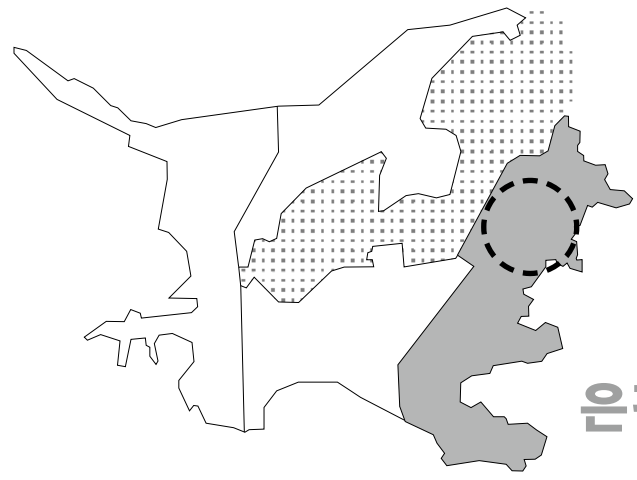


폭포동2009 183 | digital photo&print | 125×107 | 2021



178¹⁷⁹





은평한옥마을
Eunpyeong Hanok Village

2002 — 2017



한옥말2002 001 | digital photo&print | 150×50 | 2021





188, 189

한옥마을2017 008 | digital photo&print | 250×80 | 2021



한옥마을2017 014 | digital photo&print | 200×100 | 2021



190¹⁹¹







196¹⁹⁷

뉴타운 전경2010 005 | digital photo&print | 230×80 | 2021



논고

은평뉴타운 2002-2021 Eunpyeong New Town

강홍구 / Kang Hong Goo

2002-20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에 걸쳐 있는
은평뉴타운은 2002년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시작되었고 2010년에 완공될 예정이었다.

총 개발면적은 3,495,248m²(약 1백5만7천평)이고
주택 15,200호, 거주인구 42,560인이 목표였다.

개발되기 전 은평뉴타운의 대부분은 그린벨트, 자연 녹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었으며 건축물 4,230동, 8,721세대,
인구 25,100명이었다.



<강홍구 작가와의 대화> 영상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은평뉴타운에 대한 사진을 찍고 관심을 가진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시내버스를 타고 혹은 걸어서 은평 지역을 둘러보러 다닌 것은 불광1동으로 이사를 한 해인 2001년 여름. 작업실에서 북한산을 오르는 길이 먼저 흥미를 끌었다. 그 길은 북한산 죽두리봉 뒤편 산자락에 나 있었다. 물론 정규 등산로가 아닌 길들이었다.

심심할 때면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고도 웬만한 높이까지는 오를 수 있었고, 오르다 힘들면 바위 비탈에 주저앉아 산 아래 펼쳐진 집들과 한강 너머 뽕연 먼지로 흐려져 신기루 같은 고층 건물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다.

다음으로는 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을 지나 폭포동으로 가는 길이었다. 역시 북한산 산자락이고 등산 코스가 있었지만, 셋 길을 가며 개울을 따라 지어진 집들과 마을, 들판과 주말농장을 살피는 것이 좋았다. 주위엔 꽃 농장이 많아 여름이면 백일홍 나무가 연자주색 꽃을 무더기로 피우곤 했다.

폭포동 길을 따라 은평메디텍고등학교와 신도초등학교를 지나 구파발역에 이르는 길도 흥미 만점이었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은 시골스런 분위기가 있었고 시간도 느릿하게 흐르는 듯했다. 구파발이나 기자촌 앞에서 진관사로 가는 길과 거기서 오르는 북한산에 등산로도 좋았고, 한양주택, 기자촌 앞의 마을들도 둘러 볼만 했다.

동네와 길들을 걸으며 농촌 분위기와 도시 변두리 사이에 있는 이 기묘한 공간을 느긋하게 탐색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그때가 2002년 무렵, 실제로 틈틈이 사진을 찍으러 다니기도 했다. 그러다 갑자기 뉴타운 계획이 발표되었다. 뉴타운이 발표되자 여러 가지가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뉴타운 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에 찍은 모든 사진들의 맥락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그저 일단 찍어 두자 내지는 농촌과 도시 사이의 접점과 변이를 추적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다. 때문에 지금처럼 사라진 뉴타운 지역에 대한 기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라진 것들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기록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먼 훗날이 되리라고 생각했었다.

한 마디로 현실의 변화가 사진의 맥락을 바꾸고 사진을 다시 편집하고 위치를 전한 시켜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개발적 상상력-시골스러운 변두리 동네를 쓸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토목공사적 상상력이 사진적 상상력을 훨씬 앞질러버린 것이다.

내 사진과 기타 작업 결과물들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그럴 의도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다. 하지만 결국 이 사진들은 뉴타운에 대한 우연한, 의도하지 않은 기록 사진의 성격을 띠고 말았다. 사진에는 정체성이 없다는 사진 이론가 존 택(John Tagg)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

뉴타운 개발은 2021년이 된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1·2·3지구의 아파트 건축은 완료되어 입주한 지 오래지만, 국립문학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기자촌은 아직 무성한 칩새풀이 마을의 폐허를 덮고 있다. 구파발역 일대도 대형 쇼핑몰과 오피스텔 등의 건물이 들어섰지만 공터가 남아 있다. 물푸레골에는 대형 병원과 소방 교육 센터가 서 있고, 한옥마을에는 병풍 같이 펼쳐진 북한산을 배경으로 새로 지은

한, 양옥들이 주말이면 관광객들을 맞는다. 군데군데 보이는 공터에는 일부러 심은 키 작은 코스모스와 개양귀비 꽃이 바람에 흔들거린다. 이십 년이 지났지만 완공되지 않은 은평뉴타운은 아마도 영원히 진행 중일 수도 있을 것이다.

#2

사진은 레비스트로스가 말한 '구체의 과학'인 원주민들의 사고와 유사하다. 그리고 그 구체의 과학은 신화적 사고이다.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신화적 사고는 표상(image)에 묶인 채 지각(percept)과 개념(concept)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표상인 사진의 위치는 지각과 개념 사이에 있는 셈이다.

아니다. 오히려 사진 자체보다는 사진을 찍으려는 자의 태도, 세계를 보는 시선이 바로 표상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기 위해 지금 무너져가는 마을을 들여다볼 때는 개발, 개발 과정의 강제성, 강제성의 배후에 있는 시스템, 원주민들의 입주 비용 따위의 추상적, 경제적, 정치적 개념들보다는 바로 눈 앞에 있는 사물들의 구체성에 사로잡히게 된다.

예를 들면 마을과 집들의 다양함, 개와 나무와 꽃들이 모여 이루는 풍경이 그것이다. 대상에 대한 느낌을 사진 이미지로 옮겨 보려는 일종의 구체성에 관한 관음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사진이란 결국 대상을 통해 자신을 보는 것이므로 어쩌면 은평뉴타운을 통해 우리의 욕망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다.

은평뉴타운의 건설 과정은 일종의 구경거리이다. 물론 구경거리라는 말 속엔 보는 행위, 보이는 것, 관조와 주시 등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포함된다. 수전 손택은 이에 관해 『타인의 고통(Regarding the Pain of Others)』이라는 책에서 다음

처럼 썼다.

<사진은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피사체를 변형 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어떤 이미지를 아름답게(혹은 끔찍하거나 견딜 수 없을 만한 것으로, 그도 아니면 꽤 견뎌낼 만한 것으로)만들 수도 있다. 예술 자체가 뭔가를 변형시키는 작업이긴 하다. 그렇지만 비참한 일들과 비탄 받아 마땅한 일들의 증인이 되어주는 사진은 '미학적'인 듯이 보이기만 하면, 간단히 말해서 지나치게 예술인 듯하면 상당한 비난을 받는다.>

은평뉴타운 사진을 찍는 동안, 때론 찍고 난 다음 후반 작업을 할 때 부딪히는 문제의 하나가 그것이었다. 무너지는 집과 마을들, 결국은 죽어가는 개들과 나무들을 찍었지만 그 피사체들은 변형되고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이었다. 이는 대상을 현실로부터 벗어난 이미지로 만드는 사진 자체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사라지는 것과 폐허가 주는 기이한 심미성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사진은 찍는 이의 의도와 상관없이 현실의 전달자이자 심미화시키는 주역이다. 그 주역에 배후에 작가라는 이름의 내가 있지만 스스로도 사진의 성격과 방향을 장악하거나 규정 짓지 못한다. 왜냐면 사진은 찍고 만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통, 공유, 해석을 통해 기능하고 생존하기 때문이다. 사진을 찍기 시작한 지 거의 20년이 지나서 여는 <은평역사한옥 박물관>에서의 전시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북한산과 이말산 정도를 제외하고는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전혀 없다. 찍혔던 현실은 완전히 사라지고 단지 이미지만 남아 있는 것이다. 그 이미지들을 통해 과거의 현실, 과정을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이제 그 의미가 변형되었다. 이상하게도 기록을 의식하지 않았는데 기록성은 강해지고, 동시에 각각의 사진들이 가진 심미성도 강화되었다. 즉 수전 손택의 말처럼 꽤 <견뎌낼 만한 것>으로 확실히 전환된 것이다.

#3

은평뉴타운 대개는 그린벨트 지역이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개발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갈 곳이 사라진다. 원주민들이 살던 장소를 아파트 단지, 뉴타운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의견, 이익은 무시되고 부차적이 된다.

마을들 역시 사라진다. 뉴타운 지역에는 물푸레골, 폭포동, 못자리골, 우물골, 제갈말, 삼천리골... 등의 오랜된 마을들과 한양주택, 문석주택 등의 70년대 무렵 건설된 마을들이 있었다. 한양주택은 철거와 개발에 대한 저항 때문에 제법 잘 알려진 곳이다. 70년대, 박정희 치하 남북회담이 처음 열린 시절 일종의 전시용 마을로 통일로 변에 세워졌다는 동네이다. 낮은 단층 주택, 넓은 가로 전원주택 분위기가 나는, 살기 좋아 보이는 마을이었다. 근처에 살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한양주택은 언젠가 한번 살아보고 싶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고 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말하는 유동적 공포는 뉴타운 재개발 과정에도 적용된다. 바우만은 자본의 입장에서 별 가치 없는 마을을 쓸어버리는 것은 근대성의 오작동이 아니라 그 본질이라고 말한다. 법질서 유지와 경제발전이라는 근대화 과정에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은 배려할 가치가 있는 부류와 가치가 없는 삶으로 구분되고 그 과정에서 공포 또한 차등 분배된다는 것이다. 공포뿐이 아니다. 재산과 분노 또한 차등 분배된다.

뉴타운의 경우에는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와 살지 못하는 원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았고, 공동체는 사라졌으며 그에 따른 상실감, 분노는 더 많이 분배 되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원주민의 15%-20% 정도만이 뉴타운에 입주했다고 한다. 나머지 주민들은 근처 경기도와 은평구 일대에 흩어졌다. 그리고 은평뉴타운의 영향 속에 경기도 고양 삼송, 원흥 지구가 신도시로 개발되었다. 2020년에는 인접한 고양 창릉 지구가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되었다. 뉴타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확대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 사업은 한 고비를 넘어서 도시 재생이니, 도심 재개발이니 하는 논란 속에 아파트 가격의 폭등으로 완전히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 아파트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의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상실감, 자괴감, 분노가 폭력적 수준으로 차등 분배 되었다. 은평뉴타운의 가격이 폭등한 것은 아니지만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20년이 지나 도시 인프라가 갖춰진 지금은 뉴타운이 지향했던 바가 실현되었을까? 사는 곳이 근처이기 때문에 뉴타운을 자주 지나다니게 된다. 개발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급변해가는 과정을 보았던 내게 뉴타운의 풍경은 늘 과거와 현재가 겹친다. 이곳은 구파발 시장 논산집이 있었던 자리이고, 이 개울은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인위적으로 확장한 곳, 내가 좋아하던 폭포동 꽃 많은 그 집과 아이들이 먹 감던 곳은 어디인가를 찾아보게 된다. 물론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강 이쯤이라고 기억할 뿐이다.



사진은 늘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찍고,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일러 준다. 뉴타운을 찍은 사진들 역시 기억의 보조역할이 아니라 기억 그 자체이다. 인간의 기억은 늘 재구성되는 유동적인 것이어서 신뢰할 만한 객관성이 없다. 하지만 사진은 일부러 주관성을 가미해도 대상이 반사하는 빛을 찍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파편적이지만 진실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아마도 내가 찍은 사진들이 의미나 가치가 있다면 그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를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 또한 사진을 보는 시선과 해석의 결을 바꾸는 중요

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좀 과장하자면 20년이 지난 은평 뉴타운에 관한 사진은 과거의 그 사진이 아닌 것이다.

I became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of Eunpyeong New Town wholly by coincidence. When I took my photographs, I was just trying to take pictures and show the places of contact and transition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I never expected that they would become historical records of things that have since disappeared, records that evoke memories of and nostalgia for a New Town area that no longer exists. Even if I had thought that were a possibility, I never would have thought it could occur until the distant future.

In a way, the changes to the reality of the area have changed the context of the photos, re-editing them and changing their settings.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al vision—the civil engineering vision of clearing out rurality and building apartments—went far beyond my photographic vision.

My photos and other works were not supposed to be historical documents. I had no intention of that and no plan for that. Still, these photographs have accidentally and unintentionally become documentary photographs of New Town. Photo theorist John Tagg claimed, “Photography as such has no identity.” I find this argument very persuasive.

Even in 2021, the development of New Town has not ended. Although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s in Districts 1, 2, and 3 was completed long ago and tenets have lived there for a long time, the Giza Village—where a literature museum is scheduled to be built—is still covered with thick arrowroot vines. Eunpyeong New Town has been in development for over 20 years, and it may remain in progress forever.

Regardless of the intention of the photographer,

photography is a messenger of reality and an aesthetic protagonist. I am standing behind the protagonist. I am called the “artist,” but I myself cannot control or define the nature and direction of the photography. Strangely, the documentary value of the photos was strengthened even though I was not consciously aware of the documenting. At the same time, the aesthetics of each photo were also strengthened. In other words, as Susan Sontag has said, it has definitely been transformed into something “quite bearable.”

My photos always show me things that I have not seen and tell me things that I cannot remember. The photos taken in New Town are not just a supplement to my memories; they are the memories themselves. Human memories are fluid and are constantly being reconstructed, so they cannot be relied upon for objective truth. However, even if subjectivity is intentionally added to photos, the fact that light was reflected into a camera does not change. Although it is fragmented, it may still contain fragments of the truth.

Perhaps it is because of these fragments that the photos I have taken have meaning or value. Of course, it depends on how one looks at it, but time is also an important factor that changes the way one looks at photos and the texture of one’s interpretation of them. Twenty years from now, the pictures of Eunpyeong New Town will be transformed again.

은평뉴타운의 기억 강홍구 사진전

«집 꽃 마을...»

Memories of Eunpyeong New Town / Kang Hong Goo

«Home Flower Village ...»

발행일 2021년 6월 30일

발행처 은평역사한옥박물관
(03308)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50길 8
02-351-8523~4

제작·디자인 ㈜디자인인트로·이수지

본 도록의 권리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 있으며,
도록에 게재된 자료와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간등록번호 51-3110000-000097-01

ISBN 979-11-89105-14-3 93910

값 20,000원

